

10월 23일 뉴스 종합 정리

2008년 10월 22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글로벌 R 증폭 : 다우 8,519.21pt (-5.69%)	글로벌 경기후퇴(recession) 우려감이 증폭되면서 투매를 불러냄. 투매는 장마감 한시간을 남겨놓고 집중되었으며, 다우 지수의 8600선과 S&P500 지수의 900선이 무너졌음.
유가 16개월 최저 WTI 원유: \$66.75 (\$-7.52)	경기민감주인 원유 등 상품주가 글로벌 경기후퇴 우려감으로 일제히 급락. 특히 국제 유가가 16개월래 최저치로 내려앉으면서 상품주 하락을 주도했음. 유가는 작년 6월13일 이후 최저치 기록.
달러 자금시장 안정세	달러 유동성을 가늠하는 라이보(런던은행간금리)는 8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음. 3개월짜리 라이보는 3.54%로 전일대비 29bp 떨어졌고, 하루짜리 라이보는 지난 2004년6월 이후 최저치인 1.12%로 하락했음.
파키스탄, IMF 구제금융 신청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IMF 총재는 파키스탄 정부와 수일 내 구제금융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지원 의사를 밝혔음. 구제금융 규모는 약 100억달러로 추정되고 있음.
G20 정상회담 내달15일 美서 개최	부시 미국 대통령이 내달 15일 워싱턴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한국 등 G20(선진 및 신흥 20개국) 지도자 등이 참가하는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선 글로벌 금융위기 진정을 위한 대책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금융 규제개혁 등이 논의될 예정.
유로 폭락-엔화 초강세 지속..달러도 강세	22일(현지시간) 오후 3시23분 현재 달러/유로 환율은 전날에 비해 2.19센트(1.67%) 급락(달러가치 상승)한 1.2843달러를 기록. 유로화가 1.28달러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06년 11월 이후 처음. 엔/달러 환율은 전날에 비해 2.67엔(2.67%) 내려앉은 97.45엔을 기록, 7개월래 최저수준을 기록
ECB, 은행권에 통화스왑 통해 달러 공급	유럽중앙은행(ECB)은 22일 시중 은행에 7일 만기 통화스왑을 통해 금융기간이 원하는 만큼 달러를 교환해주는 유동성 공급 조치를 단행.
英총리 "영국, 경기 침체 가능성 크다"	브라운 총리는 22일 의회에서 열린 주례 '총리와 의 질의' 시간에 세계적인 경기 하락세로 영국도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처음으로 "침체(recession)"라는 용어를 언급. 영국의 국립경제사회연구소(NIESR)도 영국 경제가 2009년에 0.9%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

제목	주요 내용
삼성CDO, 신용위기 새로운 뇌관 '급부상'	삼성 자산담보부증권(CDO)이 신용위기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 손실 규모와 그로 인한 충격이 서브프라임 모기지과 맞먹을 것이라는 분석
코스닥, 연중최저 IPTV주 급등	개인 64억원 외국인 97억원 매도, 기관 116억원 매수 지상파 실시간 재전송 합의로 IPTV 관련주 상승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